

공동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관련성 탐색*

양 소 정 정 경 미[†] 김 원 경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한국디지털대학교 청소년학과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녀의 주양육자 역할을 낫시간 동안 담당하는 공동양육 조모 125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간의 관련성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로서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선택·최적화·보상(SOC) 전략, 그리고 조부모로서의 의미(GM)가 사용되었으며, 모형은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조부모로서의 의미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은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과의 유의한 경로지수를 나타냈으며, 사회적 지지와 조부모로서의 의미는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C전략은 양육스트레스와의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공동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하나의 통합적인 모형으로 검증한 결과, 특히 사회적 지지와 조부모로서의 의미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보호요인이라는 점이 시사되었다. 위의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손자녀 양육, 공동양육가정,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선택·최적화·보상 전략, 조부모로서의 의미, 우울,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BK21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 양성 및 실용화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정경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
Fax : 02-365-4354, E-mail : kmchung@yonsei.ac.kr

현대사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세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Obaid & Malloch-Brown, 2002).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보고되며(OECD, 2001),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통계청, 2007). 이와 같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후를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노년기의 안녕감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Rowe & Kahn, 1997).

조부모 역할은 노화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변화 중 하나로, 1970~80년대에는 조부모로서의 정체성과 조부모 역할 만족감이 연구의 주 대상이 되었다(Park & Greenberg, 2007). 그러나 여성노동인구의 증가와 가족제도의 변화로 편부모 가정과 취업모의 수가 증가한데다가 노인의 신체적 기능은 개선됨으로써 조부모들이 손자녀의 양육을 대리하는 경우가 늘어났고(김태현, 1999; Fuller-Thomson, Minkler, & Driver, 1997; Szinovasz, 1998), 90년대에 들어서는 대리양육자로서의 조부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Park & Greenberg, 2007). 양육을 하는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로는 우울과 삶의 만족도를 들 수 있는데(배진희, 2007), 노년기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인 노년기 우울은 노화에 포함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으나 노인의 자살률을 높이고 공존병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폐해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으로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Hasche & Morrow,

Howell, 2007). 또한 노년기에는 건강이나 인간 관계 등 “좋은 삶”의 객관적인 요소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저하되지만, 주관적인 삶의 질은 개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조부모의 양육형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인 조손가정과 공동양육가정으로 나뉠 수 있다(Bowers & Myers, 1999). 조손가정은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물질중독, 방임 및 학대, 이혼, 또는 가출 문제 때문에 조모가 전적으로 양육을 부담하는 가정이다(옥경희, 2005; 최혜경, 2002; Fuller-Thomson, et al., 1997; Pruchno, 1999).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여자 노인 중 약 1.2%가 조손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통계청, 2005), 이들은 대체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으며(김미혜, 김혜선, 2004; 박창기, 2002) 우울, 부담감, 소외감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낮은 심리적 안녕감이 보고되었다(권인수, 2000; 최혜경, 2002).

공동양육 조모들의 경우 주로 맞벌이를 하는 자녀세대를 도와주거나 조모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양육을 담당하는 중산층 조모들이다(서병선, 1995; 이미숙, 조병은, 강란혜, 2004; Bowers & Myers, 1999; Jendrek, 1993; 1994).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40.7%가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기는 공동양육 가족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조사되었고(통계청, 2005) 다른 연구들에서도 67.5%(강희경, 조복희, 1999), 55.7%(정문숙, 1996)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역시 개인적인 시간의 감소, 우울, 고립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지만(서병선, 1995), 조손가정에 비해

공동양육 조모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양육은 그 자체만으로도 양육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Crnic & Greenberg, 1990), 발달과업상으로 보았을 때 양육을 담당할 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양육의 부담을 안게 되는 조모들의 경우 감소된 신체적 능력과 정체성의 불일치 때문에 양육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Pinson-Millburn, Fabian, Schlossberg, & Pyle, 1996). 대리양육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 조모들은 양육을 하지 않는 조모들에 비해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호소한다(Kelley & Damato, 1995).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조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높으며(오진아, 2006), 양육을 담당하는 조모는 그렇지 않은 조모에 비해 유의미하게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우울하며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된다(이지연, 정경미, 김원경, 2008).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조모에게 심각한 우울과 낮은 삶의 만족을 초래함으로써, 결정적으로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 김혜선, 2004; 배진희, 2007; 이화진, 2004; Bowers & Myers, 1999; Musil & Ahmad, 2002).

조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양육조모와 비양육조모 집단 간의 차이를 보고한다.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심리적 기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이지연 등, 2008), 사회적 지지의 경우 양육조모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사회적 지지는 조모를 양육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며 높은 삶의 만족과 낮은 우울 등을 예측한다고 하며(김미혜, 김혜선, 2004; 배진희, 2007; Kelley,

Whiteley, Sipe, & Yorker, 2000; Sands & Goldberg-Glen, 2000), 이는 양육을 담당하는 조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노인들에게 있어서 노년기 안녕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신체건강(Tomaka, Thompson, & Palacios, 2006)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ussell & Cutrona, 1991).

일반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 선택·최적화·보상(Selection, Optimization, Compensation; 이하 SOC)전략(Baltes & Baltes, 1990)을 통한 성공적인 노년기 적응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SOC는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자원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적화'시키며, 부족한 부분을 '보상'함으로써 전생애에 걸친 적응을 설명하는 발달이론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물학적 능력과 사회지지망의 감소를 경험하는 노년층의 경우 그 수와 폭이 감소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록, 즉 SOC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삶의 만족(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 1999; 안지연, 1997; Freund & Baltes, 2002)을 보고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SOC전략의 사용은 사회적 지지를 비롯한 자원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노인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손의성, 2007; Lang, Rieckmann, & Baltes, 2002). 노인의 손자녀 양육과 SOC전략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주양육자 조모들이 건강이나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등의 자원 손실을 경험하므로 SOC전략 사용은 조모들이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년 중에서도 특히 조부모로서의 노인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 의하면 조부모로서의 의미(Grandparenthood Meaning; GM)가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조부모로서의 의미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며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 등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Hayslip, Henderson, & Shore, 2003; Reitzes & Mutran, 2004b). Kahana와 Kahana(1971)가 밝혀낸 조부모 특성들에 기초하여 Kivnick(1983)이 분류한 조부모로서의 의미는 이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측정하고 있는 까닭에 다른 분류들보다 대표적으로 활용되었다. 조부모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경우 자신이 조부모라는 역할을 확인하는 행동과 태도를 취하게 되며(Stryker & Burke, 2002), 그 역할에서 진실된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우울증상은 감소함으로써 안녕감이 증진된다고 하였다(Gecas & Burke, 1995). 그러나 조부모로서의 의미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양육책임이 없는 중산층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고(Reitzes & Mutran, 2004a; 2004b), 양육을 담당하는 조모를 대상으로 하였을지라도 직접적으로 양육스트레스는 다루지 않는 등(Hayslip, Shore,

Henderson, & Lambert, 1998; Shore & Hayslip, 1994) 주양육자이자 대리모 역할을 하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조부모로서의 의미를 연결시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부모로서의 의미가 조모의 안녕감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존재하지만, 양육을 담당하는 조모들의 노년기 적응 및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제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태이다.

앞서 소개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은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공동양육가정의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조모들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제외할 경우 부족한 편이다. 일반적인 노인 및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의하면 SOC전략 사용과 조부모로서의 의미가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한다고 보고되나, 이러한 요인들이 손자녀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동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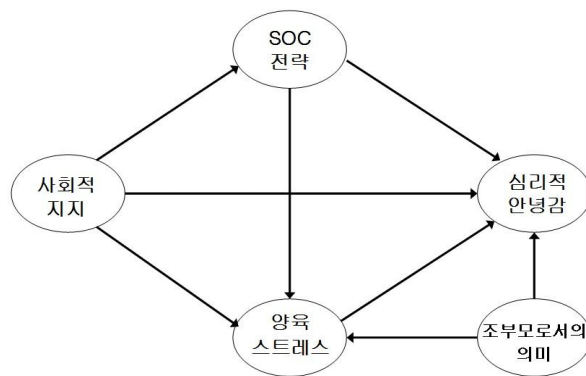


그림 1. 공동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 이론모형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SOC 전략을 강화하거나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SOC 전략과 조부모로서의 의미가 공동양육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간접적인 경로에 대해서도 조사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딸 또는 며느리의 직장생활로 인해 학령전기 연령의 손자녀를 낫시간 동안 돌보는 공동양육 조모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이론적 가정에 의거해 구성한 이론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4~6세 유치원 아동들의 조모 1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아동의

표 1.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사례수(%)
지각된 사회계층	상	7(5.6%)
	중	82(65.6%)
	하	34(27.2%)
	무응답	2(1.6%)
	연평균 가구총소득	7000만원 이상
	5000-6999만원	44(35.2%)
	3000-4999만원	50(40.0%)
	1000-2999만원	14(11.2%)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낫시간 동안 손자녀의 주 양육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한 조모들이었으며, 조모들의 평균 연령은 61.75세($SD=5.37$, 범위=50-78세)였다. 지각된 사회경제적 수준과 연평균 가구총소득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조모들이 손자녀의 양육을 맡아온 기간은 평균 4.66년($SD=2.43$)이었고, 일주일 평균 손자녀를 돌본 시간은 40.97시간($SD=35.80$)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의 양육경험과 양육 시간

		양육 횟수 및 시간	M	(SD)
양육 정도	현재까지 손자녀를 돌본 연수	4.66	(2.43)	
	일주일간 손자녀를 돌본 횟수	5.48	(1.29)	
	하루 동안 손자녀를 돌본 시간	7.00	(5.20)	
	일주일간 손자녀를 돌본 시간	40.97	(35.80)	

측정도구

한국판 부모 스트레스 척도 축약형(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 Short Form; K-PSI-SF)

Abidin(1995)이 개발한 부모스트레스 척도 축약형(Parenting Stress Index - Short Form; PSI-SF)을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김혜진(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스트레스 척도 축약형(K-PSI-SF)을 사용하였다. PSI-SF는 아동의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이며,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적용된 바 있다(Harrison, Richman, & Vittimberga, 2000; Leder, Grinstead, & Torres, 2007). K-PSI-SF는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 등의

하위척도로 분류된다. 점수체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36점에서 1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자의 높은 스트레스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80에서 .89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 (1985)이 개발하고 최진희(2003)가 번역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통해 조모들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삶에 대해 만족하는지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총 5개의 문항을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삶의 만족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조모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Beck(1967)이 개발하고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한국어로 번안한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였다.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들을 포함하고 있는 BDI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이미 제시된 4개의 진술 중 가장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문항을 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 진술들은 “나는 슬프지 않다”와 같은 0점부터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와 같은 3점까지

에 해당하는 문항들로서, 우울증상의 정도가 4점 척도로 평정된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36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심한 우울증상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면적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Zimet, Dahlem, Zimet과 Farley(1988)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면적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2개 국어(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임상심리학 박사에게 번역을 부탁하고 역번역 과정을 거친 뒤 사용하였다. MSPSS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구, 가족, 중요한 타인과 같은 세 가지 영역에서 지각되는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다. 점수체계는 문항당 1점(아주 강한 부정)부터 7점(아주 강한 긍정)까지 선택 가능하며, 점수의 범위는 12점부터 84점으로서,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91에서 .92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최적화·보상 척도 축약형(Selection, Optimization, Compensation - Short Form; SOC-SF)

노년기의 효율적인 자원 관리 및 적응은 Baltes, Baltes, Freund와 Lang(1995)이 개발하고 안지연(1997)이 번역한 선택·최적화·보상 척도의 12문항짜리 축약형(Selection, Optimization, Compensation - Short Form; SOC-SF)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OC는 의도적 선택(Elective Selection; ES), 상실에 기반한 선택(Loss-Based

Selection; LBS), 최적화(Optimization; O), 그리고 보상(Compensation; C)의 하위척도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육하는 조모들의 연령적 특성에 해당하는(Freund & Baltes, 2002; Jopp & Smith, 2006) LBS, O, C만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들은 각각 대상변인(target)과 방해변인(distractor)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는 두 변인 중에 자신의 태도나 행동과 더 일치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 대상변인은 1점, 방해변인은 0점으로 채점하므로 전체 점수의 범위는 0에서 12점이고,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선택·최적화·보상 전략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SOC 척도의 문항들은 SOC 구성요소의 각기 다른 측면들에 접근하도록 설계되어 있고(heterogeneous scale), 특히 하위척도들이 각기 세 개씩의 문항들로 이루어진 축약형 설문지의 경우 내적 신뢰도보다는 검사-재검사를 통한 신뢰도 측정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된다(Wiese, Freund, & Baltes, 2000). SOC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Wiese 등(2000)의 연구에서 .70에서 .80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로서의 의미 척도 축약형

(Grandparenthood Meaning - Short Form; GM-SF)

Kivnick(1983)이 개발하고 Hayslip 등(2003)이 31개의 문항으로 축약한 조부모로서의 의미 척도 축약형(Grandparenthood Meaning - Short Form; GM-SF)을 통해 조모들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조부모로서의 의미를 측정하였다. 조부모로서의 의미 척도 축약형의 한국판 척도는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한국어 번역을 하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심리학과 대학원생 2인의 역번역을 통해 재구성한 뒤, 심리학과 교수인 전문가 2인으로부터 번역의 타당성 여부

를 검토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조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부모”라는 표현을 “할머니”라고 바꿔 사용하였다. 조부모로서의 의미는 구심성(Centrality), 존경 받는 연장자(Valued Elder), 연속성(Immortality through Clan), 과거의 재경험(Reinvolvement with Personal Past), 허용성(Indulgence)이라는 다섯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1점(아주 강한 부정)부터 7점(아주 강한 긍정)까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31점에서 217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조부모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78에서 .89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전체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SPSS(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15.0을 이용하였다. 또한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의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되는 (홍세희, 2000) 상대적 적합도지수인 비교 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비표준 부합치(Non Normed Fit Index: NNFI 또는 Tucker Lewis Index: TLI),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으며, 90% 수준에서의 신뢰구간의 간격(Confidence Interval: CI)으로 RMSEA의 신뢰수준을 평가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CFI와 TLI가 .95 이상이고(Hu & Bentler, 1999), RMSEA가 .05 이하일 경우 좋은 모형(Browne & Cudek, 1993)으로 간주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한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잠재변수는 삶의 만족도와 우울 점수를 측정 변수로 사용함으로써 규정하였으며,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SOC, 조부모로서의 의미는 각기 해당하는 하위척도들을 측정변수로 삼는 잠재변수로 규정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6개의 변인인 양육스트레스, 우울,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SOC, 조부모로서의 의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와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였으나, 양육스트레스와 SOC 전략 간의 상관계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 = -.151, p > .05$).

상관분석 결과에 따라 유의하지 않았던 SOC에서 양육스트레스로의 경로는 사전에 제거한 상태로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을 실시하였으며(그림 2), 본 연구의 모형은 CFI와 TLI가 .9 이상이며 RMSEA가 .04 미만으로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표 4).

양육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에 강력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모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킨이 확인되었다($\beta = -.33, p < .001$). 또한 조부모로서의 의미($\beta = -.20, p < .05$)는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심리적 안녕감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리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beta = .08, p > .05$). 즉, 공동양육 조모의 경우 조부모로서의 의미 자체가 안녕감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하였을 때에 안녕감이 예측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beta = .32, p < .001$), SOC($\beta = .28, p < .05$)나 양육스트레스($\beta = -.20, p < .05$)를 매개로도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조모들이 안녕감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SOC 전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형의 전체적인 경로계수 및 t 검증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낮 시간 동안 손자녀의 주양육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양육가정의 조모 125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형 검증 결과,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SOC 전략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조부모로서의 의미는 심리적 안녕감으로의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와 조부모로서의 의미는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나, SOC전략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SOC전략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

표 3. 척도 총점과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지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BDI	1																			
2. SWLS	-.56**	1																		
3. K-PSI	.39**	-.28**	1																	
4. PD	.37**	-.29**	.89**	1																
5. PCDI	.13	-.10	.70**	.89**	1															
6. DC	.41**	-.28*	.77**	.42**	.57**	1														
7. MSPSS	-.41**	.33**	-.24**	-.17	-.18	-.23**	1													
8. FB	-.36**	.31**	-.20*	-.12	-.13	-.28**	.88**	1												
9. Fun	-.36**	.32**	-.22*	-.17	-.18	-.20*	.92**	.66**	1											
10. SOC	-.41**	.29**	-.23**	-.17	-.15	-.23**	.94**	.78**	.85**	1										
11. SOC	-.22*	.22*	-.15	-.07	-.18*	-.10	.18*	.22*	.12	.16	1									
12. IBS	-.14	.22*	-.12	-.09	-.13	-.14	.07	.17	.03	.02	.67**	1								
13. O	-.23**	.17	-.08	-.05	-.09	-.06	.28*	.28**	.13	.19*	.76**	.31**	1							
14. C	-.30**	.216*	-.15	-.06	-.17*	-.15	.23**	.27**	.15	.22*	.70**	.25**	.57**	1						
15. GM	-.28**	.19*	-.22*	-.13	-.14	-.24**	.31**	.34**	.26**	.24**	.74**	.17*	.31**	.29**	1					
16. VALB	-.32**	.22*	-.27**	-.15	-.23**	-.29**	.33**	.35**	.31**	.29**	.28**	.17	.34**	.34**	.85**	1				
17. Cent	-.24**	.16	-.21*	-.12	-.12	-.20*	.15**	.26**	.23**	.17*	.24**	.14	.27**	.22*	.87**	.61**	1			
18. Inhab	-.17**	.18	-.12	-.10	-.14	-.20**	.20**	.19*	.15	.15	.11	.16	.748**	.537**	.610**	.537**	1			
19. Inmate	-.19**	.19	-.12	-.05	-.08	-.18*	.241**	.18*	.16	.23**	.19*	.262**	.246**	.269**	.703**	.670**	.633**	1		
20. Rainy	-.21**	.09	-.10	-.09	-.10	-.23**	.29**	.13	.20*	.15	.04	.241**	.27*	.773**	.398**	.598**	.457**	.622**	1	
Mean	9.94	19.38	82.19	30.14	25.58	26.46	57.83	19.00	19.63	19.20	5.67	1.39	1.62	1.26	155.51	43.09	41.94	19.98	31.40	19.02
SD	(7.73)	(6.67)	(25.98)	(15.73)	(10.98)	(7.12)	(12.77)	(4.50)	(4.76)	(4.75)	(2.88)	(.91)	(1.17)	(1.13)	(22.37)	(6.66)	(6.88)	(6.78)	(5.00)	(4.46)

표.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K-PSI=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PD= Parental Distress(K-PSI), PCDI=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s(K-PSI), DC= Difficult Child(K-PSI), MSPSS= Multiple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un= Fun(K-MSPSS), Fun= Fun(K-MSPSS), SOC= Selection, Optimization, Compensation, IBS= Life-Based Selection(SOC), O= Optimization(SOC), C= Compensation(SOC), GM= Grandparenting Meaning, VALB= Validated Behavior(GM), Cent= Centrality(GM), Inhab= Inhabitancy(GM), Inmate= Inmate(GM), Rainy= Rainier(GM)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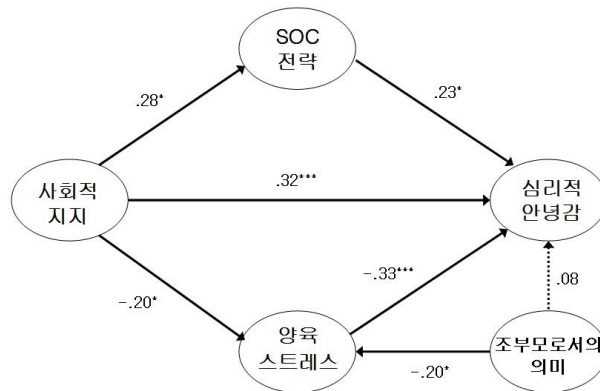


그림 2. 공동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표 4. 공동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i>df</i>	<i>p</i>	CFI	TLI	RMSEA(90% CI)
116.507	98	.098	.978	.973	.039(.000-.064)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하고 삶의 만족도가 저하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e.g., 배진희, 2007; Kelley et al., 2000). 사회적 지지와 안녕감, 그리고 조부모로서의 의미와 안녕감 간의 경로 역시 양육스트레스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모들의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나 조부모로서의 의미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양육스트레스 연구(Quittner, Glueckauf, & Jackson, 1990)에서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의 선행요인이 됨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모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보고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조모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발전시

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모들의 SOC전략 사용의 경우, 기존 문헌들에서와 같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앞서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양육스트레스와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SOC전략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책략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책략 자체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SOC전략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Gignac, Cott, Badley (2002)의 연구에서 골관절염 노인 환자들의 SOC전략 사용이 골관절염으로 인한 무기력감 등의 스트레스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 그러한 결과에

표 5. 공동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 모형의 경로계수와 t 검증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측정 구조(측정변수)			
양육스트레스 → PD	.933	.418	5.131***
양육스트레스 → PCDI	.888	.572	7.763***
양육스트레스 → DC	1.000	1.000	
조모로서의 의미 → Val.E.	1.000	.810	
조모로서의 의미 → Centr	1.035	.810	9.903***
조모로서의 의미 → Indul	.499	.710	8.390***
조모로서의 의미 → Immort	.796	.858	10.620***
조모로서의 의미 → Reinv	.592	.715	8.468***
SOC 전략 → LBS	1.000	.368	
SOC 전략 → O	2.675	.769	3.349***
SOC 전략 → C	2.535	.754	3.369***
사회적 지지 → Fri	.740	.754	10.902***
사회적 지지 → Fam	.915	.881	14.402***
사회적 지지 → S.O.	1.000	.963	
심리적 안녕감 → BDI	1.000	.916	
심리적 안녕감 → SWLS	.491	.606	4.735***
이론 구조(잠재변수)			
양육스트레스 → 심리적 안녕감	-.320	-.325	-4.039***
사회적 지지 → 심리적 안녕감	.483	.319	3.569***
SOC 전략 → 심리적 안녕감	4.705	.228	2.113*
조모로서의 의미 → 심리적 안녕감	.104	.081	.913
조모로서의 의미 → 양육스트레스	-.260	-.199	-2.152*
사회적 지지 → 양육스트레스	-.309	-.201	-2.247*
사회적 지지 → SOC 전략	.020	.277	2.181*

* $p < .05$, ** $p < .01$, *** $p < .001$

대해 연구자들은 골관절염 환자들이 SOC전략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만성적인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기에 앞서 문제들이 제거됨으

로써 무기력함을 보고하지 않거나 가려졌을 것(masked)이라고 추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SOC전략이 같은 맥락으로 작용했을 경우,

SOC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조모들은 양육상황에 잘 적응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직접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며 SOC전략 사용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손의성, 2007)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양육자 조모들에게도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으로 안녕감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간접경로를 통해서도 안녕감을 예측하는 요인이므로 양육자 조모들에게 가족, 친구, 이웃 등이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주고 SOC전략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울을 예방하고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조부모로서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심리적인 안녕감을 예측하지 않고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줌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로서의 의미가 조모의 안녕감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불일치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낯시간 동안 손자녀의 주양육자 역할을 담당하는 공동양육 조모였던 반면에, 조부모로서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Reitzes & Mutran, 2004a; 2004b) 둘은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조부모들에게는 가끔씩 손자녀들과 만나고 접촉하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하는 역할 의미성이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조부모로서의 역할만족도가 높을 수 있지만(Reitzes & Mutran, 2004a),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조모들과 같이 양육자로서 지속적으로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조부모라는 것에 단순히 의미를 두는 것만으로는 만족감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아동의 조모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돌보는 경우, 조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하였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그 대상을 낯 시간 동안 손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공동양육가정의 조모들로 하였지만,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조손가정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통합적 양육스트레스 모형이 조손가족 조모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헌에 의하면 손자녀의 주양육자 역할을 담당하는 조모들은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를 겪지만, 조손가정의 조모들이 보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동양육 조모 집단에게 검증한 모형을 조손가정 조모들에게 적용할 경우, 비슷하거나 더욱 뚜렷한 양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구조방정식모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편에 속하였으므로, 적절한 표본크기가 100에서 150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Ding, Velicer, & Harlow, 1995)을 추정법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늘려 모형을 검증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SOC 척도의 LBS, O, C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였고, 축약형 SOC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SOC척도의 축약형의 경우, SOC척도 자체의 특성은 물론 적은

문항수로 인해 Cronbach's alpha 값을 검사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고된다(Wiese et al., 2000).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를 통해 SOC 척도의 신뢰도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전체 문항들을 포함시킴으로써 SOC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없었던 부분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SOC 전략, 조부모로서의 의미를 통해 공동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 모형을 구성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이 밖에도 양육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 및 양육스트레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검증도 실시함으로써 양육자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 기제를 보다 자세히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에서 양육하는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지지 등이 각각 다루어지긴 했으나, 이를 양육자 조모들의 보호요인으로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한 사례는 드물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기제를 기존의 사회적 지지에 SOC와 조부모로서의 의미를 보호요인으로 추가하여 하나의 통합적인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는 양육과 무관한 조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조부모로서의 의미라는 개념을 양육자 조모에게 적용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조부모로서의 의미가 고전적이고 먼 존재로서의 조부모가 아닌, 직접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는 양육자 조모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재까지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전무하였던 SOC전략은, 조모들이 양육스트레스를 보고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SOC전략의 사용 자체는 공동양육 조모들에게도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SOC의 적용 가능성의 지평을 넓혔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모형에 의하면 특히 사회적 지지와 조부모로서의 의미가 양육스트레스의 보호요인이라는 점이 시사된다. 따라서 취업모가 아동의 양육을 조모에게 맡길 경우 무엇보다도 가족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양육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제한되는 조모에게는 사회적 지지망이 감소하지 않도록 양육하는 노인에게 이웃과 지역사회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을 담당하는 조모 개인의 내적인 측면으로는 자신이 조부모라는 사실을 의미 있게 지각하고 있는 것이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노년기 적응을 대비함에 있어서 조부모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경, 조복희 (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아동학회지, 20, 41-55.
- 권인수 (2000).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 212-223.

- 김미혜, 김혜선 (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회*, 24, 153-170.
- 김태현 (1999). 노년학. 교문사.
-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 (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 61-81.
- 박창기 (2002).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가족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진희 (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양육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 67-94.
- 서병선 (1995). 조모의 손자녀 대리 양육 수행과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의성 (2007). 배우자 사별노인의 적응에 관한 연구 - 선택·최적화·보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와 성별 및 자녀동거 여부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지연 (1997).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선택·적정화·보상전략과 대처행동양식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 청년집단과 중·노년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진아 (2006).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아동간호학회지*, 12, 368-376.
- 옥경희 (2005).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 103-114.
-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김혜진 (2008).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 - Short Form: K-PSI-SF)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 363-377.
- 이미숙, 조병은, 강란혜 (2004).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 취업모가족과 비취업모가족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2, 69-84.
- 이영호, 송중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지연, 정경미, 김원경 (2008). 중산층 양육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 325-341.
- 이화진 (2004). 조손세대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조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문숙 (1996). 취업모의 자녀양육실태, 대리양육자에 대한 태도 및 스트레스 경험정도. *경북의대지*, 37, 517-533.
- 최진희 (2003). 사회비교의 빈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경 (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 207-222.
- 통계청 (2005). 인구총조사. 통계청.
- 통계청 (2007). 2006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3rd ed.)*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Baltes, P. B. & Baltes, M. M. (Eds.). (1990).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 sciences*. Cambridge, 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tes, P. B., Baltes, M. M., Freund, A. M., & Lang, F. R. (1995). *Measurement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by questionnaire*. Berlin: Max Planck Institute for Human Development.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owers, B. F. & Myers, B. J. (1999). Grand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8, 303-311.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S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lif. Sage.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ng, L., Velicer, W. F. & Harlow, L. L. (1995). Effects of estimation methods, number of indicators per factor and improper solutions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it indic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 119-143.
- Freund, A. M. & Baltes, P. B. (2002). Life management strategies of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Measurement by self-report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642-662.
- Fuller-Thomson, E., Minkler, M., & Driver, D. (1997). A profile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37, 406-411.
- Gecas, V. & Burke, P. J. (1995). Self and identity. In K. S. Cook, G. A. Fine, & J. S. House (Eds.),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psychology* (pp. 41 - 67). Boston: Allyn & Bacon.
- Gignac, M. A. M., Cott, C., & Badley, E. M. (2002). Adaptation to disability: Applying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to the behaviors of older adults with osteoarthritis. *Psychology and Aging*, 17, 520-524.
- Harrison, K. A., Richman, G. S., & Vittimberga, G.L. (2000). Parental stress in grandparents versus parents raising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Issues*, 21, 262-270.
- Hasche, L. & Morrow-Howell, N. (2007). Depression. In J. A. Blackburn & C. N. Dulmus (Eds.), *Handbook of gerontology: evidence-based approaches to theory, practice, and policy* (pp. 87-116).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Hayslip, B., Henderson, C. E., & Shore, R. J. (2003). The structure of grandparental role meaning.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0, 1-11.
- Hayslip, B., Shore, R., Henderson, C. E., &

- Lambert, P. L. (1998). Custodial grandparenting and the impact of grandchildren with problems on role satisfaction and role meaning. *Th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3, 164-173.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endrek, M. P. (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Effects on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09-621.
- Jendrek, M. P. (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Circumstances and decision. *The Gerontologist*, 34, 206-216.
- Jopp, D. & Smith, J. (2006). Resources and life-management strategies as determinants of successful aging: On the protective effect of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Psychology and Aging*, 21, 253-265.
- Kahana, E. & Kahana, B. (1971). Theoret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on grandparenthood.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 261-268.
- Kelley, S. J. & Damato, E. G. (1995). Grandparents as primary caregivers. *MCN: The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20, 326-332.
- Kelley, S. J., Whiteley, D., Sipe, T. A., & Yorker, B. C. (2000). Psychological distress in grandmother kinship care providers: The role of resources, social support, and physical health. *Child Abuse & Neglect*, 24, 311-321.
- Kivnick, H. Q. (1983). Dimension of grandparenthood meaning: Deductive conceptualization and empirical der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056-1068.
- Lang, F. R., Rieckmann, N., & Baltes, M. M. (2002). Adapting to aging losses: Do resources facilitate strategies of selection, compensation, and optimization in everyday function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7, 501-509.
- Leder, S., Grinstead, L. N., & Torres, E. (2007).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Stressors, social support, and health outcomes. *Journal of Family Nursing*, 13, 333-352.
- Musil, C. M. & Ahmad, M. (2002) Health of grandmothers: A comparison by caregiver statu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2, 96-121.
- Obaid, T. A. & Malloch-Brown, M. (2002). Joint statement to 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April 8-12, 2002, Madrid, Spain.
- OECD (2001). OECD 한국경제보고서. 재정경제부 역, 재정경제부.
- Park, H. H. & Greenberg, J. S. (2007). Parenting grandchildren. In J. A. Blackburn & C. N. Dulmus (Eds.), *Handbook of gerontology: evidence-based approaches to theory, practice, and policy* (pp. 87-116).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Pinson-Millburn, N. M., Fabian, E. S., Schlossberg, N. K., & Pyle, M. (1996).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 548-554.
- Pruchno, R. (1999). Raising grandchildren: the

- experiences of black and white grandmothers. *The Gerontologist*, 39, 209-221.
- Quittner, A. L., Glueckauf, R. L., & Jackson, D. N. (1990). Chronic parenting stress: moderating versus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66-1278.
- Reitzes, D. C. & Mutran, E. J. (2004a). Grandparenthood: Factors influencing frequency of grandparent-grandchildren contact and grandparent role satisfaction. *The Journals of Gerontology*, 59B(1), S9-S16.
- Reitzes, D. C., & Mutran, E. J. (2004b). Grandparent identity, intergenerational family identity, and well-be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59B(4), S213-S219.
-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 433-440.
- Russell, D. W. & Cutrona, C. E. (1991). Social support,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the elderly: Test of a process model. *Psychology and Aging*, 6, 190 - 201.
- Sands, R. G. & Goldberg-Glen, R. S. (2000). Factors associated with stress among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Family Relations*, 49, 97-105.
- Shore, R. J., & Hayslip, B. (1994). Custodial grandparenting. In A. E. Gottfried & A. W. Gottfried (Eds.), *Redefining families: Implications for children's development* (pp. 171-217). New York: Plenum Press.
- Stryker, S. & Burke, P. J. (2002).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 16 - 35.
- Szinovacz, M. E. (1998). Grandparents today: a demographic profile. *The Gerontologist*, 38, 37-52.
- Tomaka, J., Thompson, S., & Palacios, R. (2006). The relation of social isolation,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to disease outcomes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8, 359-384.
- Wiese, B. S., Freund, A. M., & Baltes, P. B. (2000).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n action-related approach to work and partnership.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 273-300.
- Zimet, G., Dahlem, N., Zimet, S. & Farley, G.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30.
- 1 차원고접수 : 2008. 10. 22.
 심사통과접수 : 2008. 11. 18.
 최종원고접수 : 2008. 12. 1.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ay-care grandmothers

Soh-Jeong Yang

Kyong-Mee Chung

Won-Ky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Youth Studies
Korea Digital Universit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ay-care grandmothers. One hundred and twenty-five day-care grandmothers of kindergarten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Predictors for grandmothers' well-being were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selection-optimization-compensation (SOC) strategies, and grandparenthood meaning (GM). The model showed good model fit. All paths in the model were significant except for GM to psychological well-being. Mediated by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GM had an indirect effect to psychological well-being. SOC was not correlated to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is integrative well-being model, social support and GM were buffers against parenting stres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s well as future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day-care grandmother,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selection, optimization, compensation, grandparenthood meaning, depression, satisfaction with life, psychological well-being